KÓKKOS

한국성서대학교 KOREAN BIBLE UNIVERSITY 코코스는 '한알의 밀을 의미 • 발행인 강우정 • 편집주간 이강동 •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 TEL 02-950-5401

서울과 수도권지역 대학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39 개교 대학이 참여한 콘텐츠 성과포럼에서 우리대학 김도훈 학우팀의 ' 의료진 자녀의 양육지원을 위한 놀이멘토링 프로그램 ' 이 최종 우수작 10 개교에 선정되었다 . (앞줄 왼쪽 황동준 , 이한나 , 뒷줄 왼쪽 우동욱 , 김도훈 학우) [관련기사 3 면]

'편람의 의도 정확히 파악' 평가

증빙자료의 보완 및 적합성 위해 노력

「2021 년 대학기본역량진단」 내부보고회

▲ 안정선 교수가 진로심리 상담지원 지표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평가감사실(실장 최은희교수)은 지난 1 월 28 일 일립관 101 호실에서 「2021 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준비하는 T/F 팀의 준비상황을 보고하는 내부 보고회를 가졌다. 그는 대부분의 발표자들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서 편람이 묻고 있는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보고 내용도 질문 의도에 정확하게 과녁을 맞히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일부 분야는 증빙 자료는 있지만 정리가 미진하여 일목요연하지 못하거나 답변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로서 설득력이 부족한 적합성의 문제도 간혹 발견 되어 빠른 시간 안에 풀어야할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발전계획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강규성 집필위원(부총장)은 우리대학의 발전계획과 학사구조 및 학사제도의 연계성을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휘진 법인 국장이 담당한 대학운영의 책무성은 비록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그동안의 실적으로 보아 개선 목표, 개선 계획 등이 현실성이 있고 모든 면에서 짜임새 있게 기술되어 만점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고회에서 가장 괄목할만한 진보는 '교양과정의 운영 및 개선'에 관련된 부분이다. 교양 보고는 오늘의 교양 과정이 2016 년(제 1 차 기본역량진단 시작점) 이래로 어떤 노력을 거쳐 왔으며 그 결과로 어떻게 제 2 차 핵심역량교양교육과정 고도화를 이룩하게 되었는지, 환류의 내용은 어떠했는지 등 완벽하게 기술하여 2021 년도 전체 보고서의 틀에 부드럽게 들어앉았다. 전공교육과정, 교수학습, 수업관리 등은 전통적으로 우리대학의 강세인 부분인데 이번에도 이런 강세는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수업관리 부분을 발표하던 임지영 교수는 "이건 총장이 들어야 하는 일"이라며 보고를 중단하였다. 잠시 자리를 비운 총장이 돌아온 다음 그는 "2018 년 1 학기부터 2020 년 1 학기까지 우리 대학의 전체강좌 수업일(9,388.80 일/년) 대비 휴강일(10 일/년) 비율이 평균 0.11% 입니다"라고 보고해 환성과 박수를 받았다. (표 참조)

이성아 교수는 학습역량 지원체계를 비교과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다차원적인 학생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득력 있게 기술하였다. 아울러 PDCA 단계별 평가 환류체계를 학습역량지원체계와 진로상담지원체계, 취창업지원체계 3 영역에서 통일성 있게 기술하여 학생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신뢰감을 배가하였다.

비중 높아진 학생충원율 학우들이 함께 해야 할 부분도 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약 50%의 점수는 정량적인 지표로 결정된다. 그중 제일 비중이 높은 부분이 학생충원율이다. 무려 20 점이다. 신입생충원율이 8 점, 재학생충원율이 12 점이다. 우리 대학의 경우 오는 4 월 1 일을 기준일로 잡아 신입생충원율은 100%, 재학생충원율은 111% 가 되어야 지난 3 년 기준충원율을 맞출 수 있다.

최은희 평가감사실장은 이번 내부보고회에 대해 "코로나-19 라는 쉽지 않은 여건에도 수개월 간 보고서 집필과 증빙자료 준비에 헌신하고 계신 위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는 2 월 말까지 1 차 완성된 보고서와 증빙자료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3 월 말까지 최종보고서 작성과 증빙작업을 마무리 해야 시간 내에 변경된 보고서 업로드 시스템을 숙지해서 보고서를 제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강좌 대비 휴강일

구 분	2018-1	2018-2	2019-1	2019-2	2020-1	2020-2	평균
전체강좌 수업일	9,872	9,440	8,864	9,296	9,472		9,388.80
휴강일	12	15	13	9	1		10.00
휴강일 비율(%)	0.12	0.16	0.15	0.10	0.01		0.11

지난해 졸업자 전체 취업률 71.6%

서울지역 6 위 , 수도권 7 위 기록에 랭크

우리대학 졸업자의 지난해 (2019 년) 취업율이 71.6% 를 기록하며 서울소재 38 개 대학 중에서 6 위에 랭크되었다 . 수도권 지역에서는 7 위 (10%, 70 개교) 였고 전국 기준으로는 25 위 (상위 13%, 186 개교) 에 속했다 .

이번 취업률은 지난 12 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4 년제 대학 취업현황을 건강보험 (DB) 과 연계시킨 자료를 대학공시정보 사이트 알리미에 탑재한 공식 통계다 .

우리대학 졸업자의 취업률 71.6%(전국 상위 13%) 는 전국 4 년제 대학 평균 취업률 63.3% 및 수도권 66.6% 에 비해 앞섰다 . 반면 취업의 지속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유지취업률은 80% 였는데 이는 전국 평균 81.2% 에 비해 약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학과별 현황은 영보학과가 전년도 100% 취업에 이어 97.6% 로 가장 높았고 간호 , 컴소 , 사복 , 성서학과 순으로 나타났다 . 인문계열 취업문이 점점 좁아져가는 현재 상황에서 사복의 취업율이 0.7% 상승한 점과 영보 및 사복의 유지취업률이 전년보도 6.3% 높아진 점은 고무적인 현상으로 풀이된다 .

박성범 취창업센터장은 " 지난해 연초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전체 고용시장이 위축됐고 그 여파가 올해도 지속될 것 같아 안타깝다 . 그러나 각 학과별 전문성을 살리고 우리 학우들의 강점과 특성을 다듬어 간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낳을 것 " 이라고 말하고 있다 .

'의료진 자녀 양육지원 놀이 프로그램'

우수작 당선 , 김도훈 학우팀

▲ ' 놀이 프로그램 ' 영상자료

2020 대학혁신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참여를 촉구하는 교육활동으로 공모한 성과포럼에서 우리대학 사회복지학과 학우들이 출품한 작품이 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 .

작품명은 ' 의료진 자녀의 양육지원을 위한 놀이멘토링 프로그램 ' 이고 제작팀은 김도훈 , 우동욱 , 황동준 (이상 3), 이한나 (2) 학우이다 . 코로나 -19 과중한 업무로 시달리는 의료진을 돕는 길은 그들의 자녀들을 기쁘게 돌봄으로서 양육 부담을 덜어 주자는 점에 뜻을 두었다 .

김도훈 학우는 " 현시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사회적 시각으로 접근해 동참하고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 " 고 말했다 .

사업은 지난 7 월부터 6 개월간 18 회기로 진행해 왔다 . 놀이멘토링 프로그램은 5 분 분량의 영상물이다 . 온라인을 이용한 놀이 멘토링을 통해 지역사회 의료진 자녀의 심리 , 정서적 안정 도모에 기여했다 . 간결한 내용과 특유의 영상미로 잘 결합시켜 참신성까지 돋보였다는 평이다 .

이번 콘텐츠 공모전은 서울과 수도권의 대학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학 39 개교가 참여했으며 심사를 거쳐 10 개교가 최종 선정됐다 . 서울지역은 우리대학과 이화여대 , 광운대 , 서울시립대 , 서울여대가 각각 뽑혔다 .

제 66 회 학위수여식

2 월 16(화)~18(목) 오전 오후 사흘간
최소 인원만 예약제로 ,
학사 258, 석사 70(박사 2) 명

제 66 회 학위수여식이 오는 2 월 16(화)~18(목) 일까지 3 일 동안 오전 10 시와 오후 2 시에 본교 갈멜관 305 호 소강당에서 갖는다 (하단 도표 참조). 학위수여 대상자는 258 명으로 성서학 57, 사회복지학 64, 영유아보육학 52, 컴퓨터소프트웨어학 37, 간호학과 48 명이다 . 33 회를 맞는 대학원 학위수여식에서는 최정권 (신학과 실천신학전공), 오채엽 (신학과 기독교 상담심리학전공) 원우가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며 석사 68 명 등 전체 70 명이 전공 학위를 받는다 . 신학대학원은 18 일 오후 2 시 , 그 외의 대학원은 학부 해당 학과와 같은 시간에 진행된다 .

방역당국은 대강당인 로고스홀이 지하 1 층과 2 층에 위치해 있어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사용에 난색을 표했다 . 대학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학위수여식을 취소할 수 없어 학과별로라도 갖기로 뜻을 모으고 부득이 갈멜관 305 호로 자리 잡았다 . 6 번에 걸친 릴레이 졸업식이긴 하지만 개별적인 학위기수여 등 모든 절차는 생략하지 않고 진행하기로 하였다 .

다만 코로나 –19 상황이 악화되어 집회 자체가 전면적으로 금지 되면 학위수여식이 취소될 수도 있다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참가인원은 극도로 제한되며 졸업생조차도 예약한 사람만 참석할 수 있다 . 따라서 학위수여식장인 갈멜관 305 호에는 예약한 졸업생 , 전공교수 , 보직교수 , 진행요원만 참석하고 가족과 외부인은 참석할 수 없다 . 단 갈멜관 305 호가 인원을 초과하면 브니엘홀에서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 당일 학위수여 현장은 실시간 온라인을 통해 방송된다 .

구 분	2 월 16 일 (화)	2 월 17 일 (수)	2 월 18 일 (목)
오전 10시	성서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대학원**	간호학과 **일반대학원 간호학전공**
오후 2시	영유아보육학과 **보육대학원**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신학대학원**

2021 년도 제 1 차 이사회

2021 학년도 예산안 169 억 8 천여만 원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 (이사장 반종원) 의 2021 년 제 1 차 이사회가 19 일 복음관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 교원 신규 임용과 추경안 및 2021 년 예산 심의 등을 논의하였다 . 이사회는 우리대학의 2021 학년도 예산 169 억 8 천여만 원을 심의하고 이를 통과시켰다 . 이와 함께 학교가 요청한 최사랑 (성서학과) 교수의 신규 임용안을 가결하였다 .

최사랑 교수 신규 임용

▲ 최사랑 교수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 (이사장 반종원) 은 1 월 19 일 복음관 회의실에서 2021 년 제 1 차 이사회를 열고 최사랑 박사를 성서학과 조교수로 신규임용키로 의결하였다 .

신임 최사랑 교수는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에서 사회학을 전공 (BA) 하였고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상담학 석사 (MA) 와 동 대학원에서 상담코칭학으로 박사학위 (Ph.D) 를 받았다 .

최 교수는 " 이 자리에 있게 됨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 주를 위해 학교를 위해 더 힘써 기도하고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소감을 밝혔다 . 최 교수는 지난 6 년 간 우리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해 왔으며 교수직과 함께 센터의 연구원 직도 계속하게 된다 .

통계자료관리 등 4 개 우수사업 발표

2020 중장기발전계획 사업성과발표회

▲ 권경만 기획실장이 사업성과발표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0 년 중장기발전계획 사업성과발표회가 기획실 주관으로 1 월 27 일 갈멜관 브니엘홀에서 진행되었다. 사업은 각 부서별로 가장 우수한 사업을 선정 발표하였으며 평가감사실, 교목실, 장애지원센터, 입학관리팀 순서로 이어졌다.

총장직속 팀 중에는 평가감사실의 '고등교육 통계조사 및 정보공시 자료관리' 사업이 선정 되어 권순범 팀장이 설명에 나섰다. '지표 중심의 행정' '대학 메이저리그 진입 목표' 등 2000 년대 초기부터 시작된 사업의 연속성을 통해 지표중심의 전국 상위 20% 달성을 이뤄가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었다. 교목실 민찬양 목사는 '신앙훈련체계화 밀알훈련내실화'에서 학과 중심의 자아성찰과 생태체험을 통해 관계 회복과 헌신적 자아상 강화로 밀알훈련의 질적 향상에 다가설 것임을 말했다.

교학팀 김병수 대리는 '장애학생 지원사업'에서 무장애 환경제공 마인드로 장애대학생 평가에서 5 회 연속 A 등급을 이뤄냈다며 장애학생 학습권 증대에 더욱 노력하겠음을 밝혔다. 입학관리팀 신지수 팀장은 '온라인 입시설명회 및 SNS 홍보'에서 비대면 시대 온라인 홍보강화로 긍정적 효과가 발휘 중이라며 시대에 맞는 홍보콘텐츠로 입시 토양 개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1 학년도 1 학기 장학대상자 발표

한준 (성서학과 2), 전체 최우수성적장학

▲ 전체 최우수성적장학 한 준(성서2)

장학사정위원회는 지난 1 월 19 일 사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 학년도 1 학기 성적장학대상자를 선정 발표하였다. 사정위원회는 전체 최우수와 우수 등 성적장학 및 내 외부 대상자 216 명에게 2 억 7 천 5 백만 원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전체 최우수성적장학은 성서학과 한준 (2) 학우가 4.3 만점으로 영광을 차지하였다. 학과별 최우수성적장학은 고윤호 (성서 3) 학우 등 14 명이 선정되었고 우수성적장학에는 고영욱 (사복 3) 학우 등 14 명이 기쁨을 얻었다. 공은서 (영보 3) 학우 등 14 명이 성적우수 (3 등) 대상자로 선정됐다. 신입생 성적장학은 신입생들이 등록을 마친 후 성적에 따라 결정된다.

교내 성적장학대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전체 최우수성적장학 ▲한준 (성서 2)

◆최우수성적장학

◇성서학과 ▲고윤호 (3) ▲권준영 (2) ▲김예성 (1)
◇사회복지학과 ▲유희창 (3) ▲김미림 (2) ▲허승 (1)
◇영유아보육학과 ▲문혜림 (3) ▲박주영 (2) ▲지다은 (1)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남현수 (3) ▲조제민 (2) ▲박혜원 (1)
◇간호학과 ▲이진영 (3) ▲이윤아 (2) ▲류가환 (1)

◆우수성적장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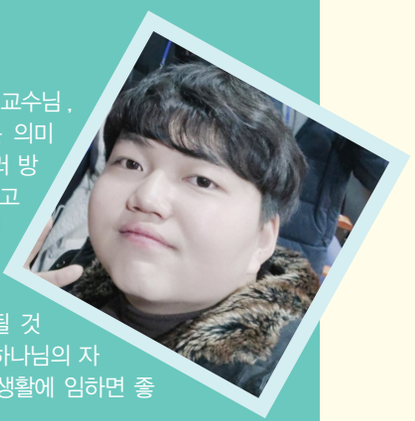
◇성서학과 ▲장주영 (3) ▲곽승우 (2) ▲김병윤 (1)
◇사회복지학과 ▲고영욱 (3) ▲윤지민 (2) ▲우민영 (1)
◇영유아보육학과 ▲송예인 (3) ▲안소희 (2) ▲이혜연 (1)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김용기 (3) ▲강민주 (2) ▲안영준 (1)
◇간호학과 ▲이영현 (3) ▲김민주 (2) ▲이소희 (1)

◆우수성적장학 (3 등)

◇성서학과 ▲한수진 (3) ▲김소의 (2) ▲조민영 (1)
◇사회복지학과 ▲이민규 (3) ▲강해민 (2) ▲김채영 (1)
◇영유아보육학과 ▲공은서 (3) ▲이한솔 (2) ▲이민경 (1)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박영신 (3) ▲윤태환 (2) ▲이삭 (1)
◇간호학과 ▲이정우 (3) ▲한솔 (2) ▲조유라 (1)

2021 학년도 학회장들의 **당찬 포부**

다원학회 _ **하나님이 다 원하는 사람**
성서학과 **김택일** 학회장



성서학과는 '다원학회'로 학우와 교수님, 하나님이 다 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학우들이 여러 방면의 사역자로 나갈 방법을 찾고 노력하는 학회장 되겠습니다. 선후배간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만들고 간증과 나눔, 묵상을 통해 함께 격려해가는 학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학과 모든 학우가 하나님의 자녀요 동역자라는 생각으로 학교생활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하루학회 _ **하나님께서 하루를 이뤄간다**
사회복지학과 **황다정** 학회장

사회복지학과는 '하루학회' 며 하나님께서 학과 구성원의 하루를 이뤄간다는 의미입니다. 학우, 교수, 동문들과 함께하고 특히 초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학우들과 소통을 위한 건의함 개설 및 관계 활성에 최선을 다하며 날선 비판도 겸허히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고 영광 돌리는 학회로 거듭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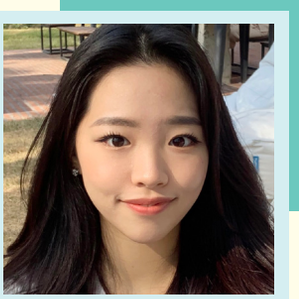
하봄학회 _ **하나님만 바라본다**
영보학과 **이지민** 학회장

영보학회는 '하봄학회' 입니다. 하봄은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의미로 주님과 열심히 달려 좋은 결과를 이루겠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학과가 더 성장하도록 학우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섬기면서 밝은 모습과 웃음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학회원 개개인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고 모두가 영보의 필요한 인재로 거듭나도록 지혜를 발휘하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가온학회 _ **가운데. 의견을 전하는 중심**
컴소학과 **김수민** 학회장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가온학회' 입니다. 가온은 가운데라는 우리말로 학우들의 입장에서 의견을 전하는 중심에 서겠음을 나타냅니다. 기대에 맞는 노력과 책임, 소통으로 믿음직한 학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행동이 제한적이라 아쉽습니다. 현재의 위기가 기회로 이어지도록 학우들의 소리를 잘 반영하며 학과 발전에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하랑학회 _ **함께 높이 날다**
간호학과 **민예린** 학회장



간호학과는 '하랑학회' 로 하랑은 함께 높이 날다는 뜻의 순우리말입니다. 학과 구성원의 발전과 비상에 필요한 날개가 되어주고 싶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코로나로 선후배간 교류에 어려움이 많은데 멘토멘티 주선과 건의사항 활성화 및 대외적인 역할로 학과를 굳건히 세워 갈 것입니다. 코로나 중에도 실습과 수업을 잘 마쳐 감사하고 모두가 하랑하는 한 해를 소망합니다.

우리대학의 교육의 질과 성과 월등하다

학업관련 5 개요인 , 31 개 항목 , 동료대학보다 높은 점수

2020 년 학부교육실태조사 (K–NSSE)

한국성서대학교 학부 교육의 질과 성과는 동료대학 (Peer Universities) 들에 비하여 월등히 우수한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 지난 달 발표된 '2020 년 학부교육실태조사보고서 (K–NSSE), 교육과미래연구소) 에 따르면 학업관련 5 개요인 , 34 개 세부항목 중 우리 대학은 31 개 항목에서 모든 동료대학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

정부 , 일반 기관 등의 대학평가가 주로 투입과 산출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 반해 이 실태조사는 학생이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자세 , 경험 , 교수 – 동료 간의 협동적 학습관계 , 대학의 적극적인 지원 등이 학부교육의 질과 성과 결정의 핵심요인이라는 이론적 기반과 실증적 연구를 토대로 수행 되고 있다 . 이 보고서에는 전국 110 개 대학이 참가하였다 .

보고서는 3 장으로 1 장은 전국 동료대학과 비교 , 2 장은 학과별 비교 , 3 장은 연도별 비교이다 . 동료대학 비교는 전국 110 개 대학과의 비교 , 수도권 중소형대학 (25 개교), 수도권 중소형자율개선대학 19 개교와 비교해 볼 수 있다 .

우리대학은 3 개의 비교집단과 비교하여 모든 영역 , 모든 요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 (표 1) 34 개 항목 중 특히 9 개 항목은 타 집단에 비해 평균 10 점 이상 높았다 . 예를 들면 '학습참여' 영역에서 '협동적 학습' 항목의 우리대학 평균은 36.82 이고 표준편차는 14.59 인데 전국대학 평균은 26.66(표준편차 17.33, 이하 같음) 수도권 중소형대학 24.71(17.45), 수도권중소형 중 자율개선대학은 24.84(17.45) 이다 . 전국대학보다 낮은 항목은 '대학환경' 의 '교우관계' , '교수관계' , '직원관계 만족도' 이다 . 이 항목은 2019 년도에도 낮게 받았는데 우리 대학이 고민하고 시급히 고쳐 나가야 할 부분이다 .

이 보고서 2 장은 대학 내 학과 간 성과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 성서학과는 '학업 도전' 영역의 '유의미한 학습' 항목에서 평균 39.85, 표준편차 12.80 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 그 외에도 '반성적 학습 ,' '학업동기 ,' '교양 있는 시민의식 ,' 등 세부항목도 최고 점수를 받았다 .

사복과 영보과는 사회과학부로 표시하는데 '교우와 학업' 영역의 '다양한 교류' 항목의 평균이 23.69, 표준편차 14.39, '대학환경' 영역의 '교수관계 만족도 ' 27.36(10.37) 와 '직원관계 만족도' 25.41(11.46) 로 최고이며 , 컴소는 '학생성과' 영역 '정보기술 / 소프트웨어사용' 항목에서 평균 43.10, 표준편차 14.40 으로 학과 간 평균 10 점 이상의 최고 평가를 받았다 . 간호학과는 '학업도전' 영역의 '자기주도학습' 항목의 평균 41.24, 표준편차 (9.75), '교우와의 학습' 영역의 '협동적 학습' 항목 40.72 (11.71), '학생성과' 영역의 '진로성숙도' 항목 42.38 (11.97) 등 골고루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었다 .

3 장 연도별 비교에서 2020 년 결과는 2019 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있다 . '학습참여' 의 11 개 항목이 하락하고 있으며 '고 (高) 효과 프로그램 참여' 10 개 항목 중 신입생 OT 와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평가를 하지 않아 제외했고 8 개 항목도 하향 , '학습자 심리' 영역에서는 '학업동기' 만 상승하였다 . '학생성과' 의 12 개 항목 중 '전공 지식 · 기술' 만 미미하게 올랐고 나머지 11 개 항목은 모두 떨어졌다 .

모든 대학이 같은 하락 추세인 것을 보면 2020 년도의 하향 추세는 코로나 –19 의 영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

[8 면에 계속]

[7 면에 이어]

전국 동료대학과 비교

1. 학습 참여 영역		한국성서대학교		전 국		수도권중소형		자율개선대 수도권중소형	
		M	SD	M	SD	M	SD	M	SD
학업 도전영역	유의미한 학습	38.70	12.16	31.78	12.48	32.21	12.34	32.21	12.32
	반성적 학습	42.68	11.64	39.18	12.40	39.59	12.37	39.66	12.29
	자기 주도 학습	39.12	10.90	37.06	11.09	37.59	10.89	37.59	10.82
1주일동안 학습시간	수업 준비	77	12.4	15,391	20.4	3,013	20.5	2,554	20.6
	수업후 학습내용 정리, 심화	78	12.6	12,529	16.6	2,358	16.1	2,018	16.3
교우와 학습영역	협동적 학습	36.82	14.59	26.66	17.33	24.71	17.45	24.84	17.45
	다양한 그룹과 교류	23.05	14.34	14.31	12.52	13.74	12.26	13.81	12.27
교수와 경험영역	교수-학생 상호작용	26.77	14.86	16.88	13.81	16.25	13.43	16.28	13.42
	효과적 수업 전략	42.19	11.76	38.07	12.23	37.69	12.04	37.59	11.98
대학 환경영역	교우관계 만족도	28.81	10.07	33.44	13.79	31.49	14.12	31.25	14.06
	교수관계 만족도	26.78	10.82	32.99	13.61	31.13	13.67	30.81	13.64
	직원관계 만족도	25.19	11.95	30.76	14.14	28.32	14.05	27.89	13.97
	지원적 대학환경	33.30	13.13	29.64	14.21	29.86	13.90	29.83	13.64

2. 高효과 PRO 참여 비교	한국성서대학교		전 국		수도권중소형		자율개선대 수도권중소형	
	M	SD	M	SD	M	SD	M	SD
신입생 세미나	32.00	18.69	23.09	18.89	21.41	18.99	21.41	19.00
학습공동체	34.87	18.30	24.43	19.70	24.51	20.06	24.63	20.01
멘튜/튜터 활동	26.71	20.12	19.00	20.10	19.87	20.82	19.91	20.76
멘튜/튜터 활동	27.00	19.84	17.95	19.14	17.22	19.39	17.28	19.36
지역사회 연계 프로젝트	24.39	19.79	14.00	17.65	12.78	17.54	13.00	17.64
교수연구 프로젝트	19.77	19.44	11.39	16.66	9.33	15.71	9.41	15.74
산업현장 참여 PRO	22.00	21.08	12.19	17.76	10.54	17.07	10.63	17.12
고학년 대상 활동	21.55	20.02	12.10	17.67	10.56	17.07	10.83	17.20

3. 학습자 심리 특성 비교	한국성서대학교		전 국		수도권중소형		자율개선대 수도권중소형	
	M	SD	M	SD	M	SD	M	SD
학업적 자기효능감	38.80	12.65	37.74	12.34	37.99	12.38	37.94	12.32
학업동기	38.35	13.10	37.09	13.34	37.26	13.39	37.18	13.34

4. 학생성과 비교		한국성서대학교		전 국		수도권중소형		자율개선대 수도권중소형	
		M	SD	M	SD	M	SD	M	SD
진로성숙도	진로성숙도	40.17	13.50	36.93	13.83	36.21	13.95	36.15	13.93
대학 몰입	대학 몰입	33.09	14.70	32.54	14.31	32.11	14.77	31.71	14.35
대학생활을 통해 얻은 학생 성과	글쓰기	34.81	14.94	29.95	16.50	30.76	16.77	30.70	16.69
	말하기	34.35	15.33	29.84	16.59	29.79	16.85	29.64	16.75
	통계분석력	34.61	15.50	31.18	16.50	31.62	16.79	31.53	16.77
	정보기술, S/W사용	34.26	16.49	29.01	18.34	30.03	19.02	30.38	18.97
	전공 지식 • 기술	43.84	13.93	41.47	15.03	41.88	15.04	41.81	14.95
	직업 지식 • 기술	40.97	15.26	36.80	16.38	35.91	16.74	35.82	16.72
	비판적 • 분석적 사고	35.90	14.97	33.11	16.03	33.87	16.29	33.60	16.18
	현실문제 해결력	36.97	14.95	33.18	16.13	33.32	16.46	33.12	16.35
	협동 능력	40.42	15.05	35.82	16.91	35.73	17.38	35.71	17.33
	다양성 이해	40.61	15.22	37.93	16.20	38.45	16.54	38.09	16.50
	교양있는 시민의식	38.52	15.26	35.45	16.27	36.33	16.54	36.05	16.42
	가치관 • 윤리관 형성	39.45	14.79	35.64	16.27	36.26	16.59	35.93	16.47

(* 참고 : M – 평균값 SD – 표준오차)

우리대학 등 소규모 4 개 대학 공동 심포지엄

혁신사업 우수사례 공유 , 꽃동네 , 루터 , 목포가톨릭대학교

▲ 강규성 혁신사업단장이 심포지엄을 진행하고 있다 .

꽃동네대학교 , 루터대학교 , 목포가톨릭대학교와 우리대학교 등 4 개 소규모 대학교들이 지난 1 월 26 일 교육부 (한국교육재단) 가 각 대학에 지원하고 있는 대학 혁신사업 중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공동심포지엄을 가졌다 . 이번 행사는 우리대학이 주관하고 ZOOM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오전 세션은 **변기용 교수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의 기조강연 " 소규모 대학에서의 대학혁신 추진전략과 과제 " 를 들었다 . 변 교수는 COVID-19 가 가져온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소규모 대학에 적합한 시사점으로 온라인 교육을 통한 탄력적이고 융합적 교육과정 운영 , 수업운영 및 지원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이와 함께 교수와 학생 측면에서의 혁신적 변화 , 그리고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조직 혁신이 필요하며 그 변화는 결국 헌신적인 한 사람 , ' 미친 교수 , 직원 ' 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제시하였다 .

오후에는 4 개 대학의 우수사례 발표가 있었다 . 첫 발표로 **우리대학 유정선 일립교육부장**이 ' 일립교육특성화 – 개별 인성강화를 위한 새내기 코칭 및 멘토링 ' 을 발표하였다 . 유 부장은 개별인성 강화의 목적은 화합과 관용의 사회인 양성이라고 말했다 . 이를 위해 학과별 담당 교목 중심의 1:1 로드맵 및 소그룹 코칭 , 멘토링 활성화로 선후배 관계향상 효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

꽃동네대학교 (배성훈 교수 , 상담심리학과) 는 동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의 교육과 훈련을 위한 가상복지관인 아미쿠스복지관을 소개하였다 . 발표자는 아미쿠스복지관의 목표는 가상의 복지관을 통해 현실 복지관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혁신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

루터대학교 (김준현 교학처장) 는 " 비대면 「경험 넓혀 ZOOM」 지원체계의 운영 및 성과 " 를 발표하였다 . 이 지원 체계는 대학이 통상적으로 하는 기능들을 「ZOOM」 이라는 임팩트 있는 단어로 엮어 대학 체제를 코로나 -19 상황에 맞는 모습으로 보여 준다 .

목포가톨릭대학교 (장혜정 교수 , 대학혁신지원사업단) 는 " 비교과프로그램의 혁신과 성과 " 를 발표하였다 . 이 대학은 개교 50 주년을 맞아 지성인 , 협력인 , 세계인의 품성을 갖춘 ' 착한 사마리아인 ' 을 인재상으로 설정 , 이를 위해 휴먼중심 창의융합형 교양교육을 추진하였는데 그 결과 비교과프로그램 개발 등 3 가지 주요 성과를 이룩했다고 보고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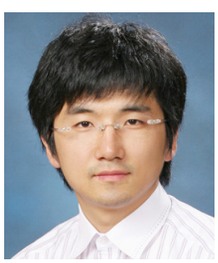
컴소학과장 현우석 교수 간호학과장 이소정 교수 임명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학과장에 현우석 교수 , 간호학과장에 이소정 교수가 3 월 1 일자로 각각 임명되었다 .

시설관리팀장에 이은광 과장이 승진 발령 되었다 .

▲ 현우석 교수(컴소)

▲ 이소정 교수(간호)



▲ 이은광 과장(시설팀)

2021 학년도 정시입시 2.06:1 마감

사회복지학과 5.06:1 로 가장 높아

2021 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 경쟁률이 2.06:1 로 최종 마감되었다. 전체 모집인원은 66 명 (재외국민 제외) 에 136 명이 지원하였다. 이는 지난해 정시 4.22:1 과 비교해 하락폭이 깊다.

정원내 학과별 경쟁율은 사회복지학과 (5 명 모집, 28 명 지원) 가 5.60:1 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5.00:1, 간호학과 4.09:1, 영보학과 2.14:1, 성서학과 0.50:1 순이다.

정시 면접은 2 월 1 일 진행되고 최종 합격자는 2 월 5(금) 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신대민 (컴소 1 회) 동문 발전기금 3 백만 원

후배를 위한 학과 발전위해

신대민 (컴소 1 회) 동문이 컴소학과 발전기금으로 사용해 달라며 3 백만 원을 후원하였다.

신 동문은 "4 년간 배운 신앙과 전공 학습을 통해 자신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특히 전공 교수님들의 제자를 향한 열정과 헌신은 잊을 수 없다. 받은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일부분에 불과하다" 며 겸손함을 나타냈다.

신 동문은 본교를 거쳐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사, 순천향대학에서 정보보호학과 박사과정 수료 후 현재 논문 마지막 학기를 맞고 있다. 금융보안원 근무. 정보보안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너스키니 간호화 190 켤레 후원

미사목민교회 , 이정목 (43 회) 목사

▲ 이정목 목사가 너스키니 190 켤레를 전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목 목사, 이소정 교수, 유정선 일립교육부장)

미사목민교회 이정목 (43 회) 목사가 간호학과 학우들이 임상 실습 때 사용하는 너스키니 간호화 190 켤레를 후원해 주었다. 너스키니 간호화는 켤레 당 평균 25,000 원이며 환산하면 4 백 70 여만 원 어치에 해당한다.

이 목사는 너스키니 간호화가 후배 학우들에게 작은 도움 되길 바란다고 말하였다. 고미숙 학과장은 학우 개인별 신발 사이즈를 파악하고 이 목사와 조율을 거쳐 물품을 인도받았다.

미사목민교회는 하남시 미사강변중앙로 220 에 있으며 국내 소외계층은 물론 필리핀과 미얀마에서 활발한 선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임 학부모기도회 회장 최유미

" 사랑으로 기도회를 활성화 " 다짐

2021 년도 학부모기도회를 이끌어갈 신임 회장에 최유미 (이동규 성서 3) 씨가 선출되었다. 지난 1 년간 학부모기도회는 코로나 -19 상황으로 모임을 갖지 못하면서 심리적 거리와 영적인 관계까지 약화되어 가고 있었다.

신임 최유미 회장은 코로나 -19 가 학부모들의 기도 모임을 제한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 부족한 자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학부모들과 함께 기도와 사랑으로 기도회를 활성화 하고 성서공동체 발전에 소임을 다하겠다 " 고 포부를 밝혔다.

최정권의 온유한
GALLERY
10호

김환기 판자집

김환기 1913~1974
http://art.chosun.com/m/article.html?contid=2018032000329

이 그림을 만난 건 우리 동네 북서울미술관 입니다. 한국 근대 미술작품중의 하나로 벽에 걸린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주권이 없어 오랜 기다림 속에서 한국에 들어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부암동 환기미술관이었는데 그곳에 없던 그림을 동네 미술관에서 만난 겁니다. 그가 피난시절 부산에서 그린 판잣집은 제가 보낸 어린 시절 서울의 판잣집과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우선 색이 달랐습니다. 기름을 흠뻑 머금은 검은 색의 골반지보다 더 두꺼운 종이들이 나무에 박힌 못을 따라 지붕을 덮고 있는데 김환기 판잣집은 고급저 보입니다.

제가 자라난 판잣집 동네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잘 먹지 못하였고 먹을 건 많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풍성했고 동네는 항상 소리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환기의 판잣집은 지극히 정적입니다. 창문에 보이는 아이들은 말이 없고 어려운 시절 두 몸은 하나가 돼 있습니다. 축대 위의 집은 안정감 있어 보이지만 지붕이 짧아 지붕 옆에 아이들이 그 집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줍니다. 다섯 식구가 아니라 세 식구일 수 있고 두 아이는 부모 없이 집에 있는 겁니다. 부모와 아이 사이에 검은 창문이 혼자 있는 아이를 외롭게 만듭니다. 환기의 판잣집은 지독히 외로워 보입니다.

"나는 이 정도의 조그마한 양옥 하나가 필요했다. 볕이 잘 드는 2층 그리고 창을 열어젖히면 푸른빛이 눈에 들어올 정도의 정원, 그리고 내가 구상하며 걸을 정도의 집을 하나 가지고 싶다." 그가 그린 판잣집과 그가 원했던 양옥 집의 상관관계는 알 수 없지만 어쩌면 이 판잣집 창문에서 그의 어린 시절 각인된 섬이 보이고 푸른 바다와 그 바다의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새들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보이는 판잣집은 정적이지만 그 창문 너머 바다는 살아 움직이는 세상을 품은 바다 일 것입니다.

성서대학살리기 『KBU 2020 캠페인』

일반(일시불) **후원자** (합계 15,027,787원)

강우정(교직원)	10,827,787	오윤선(교직원)	300,000	신영옥(동문가족)	200,000
신대민(동문)	3,000,000	김희수(교직원)	200,000		

약정 후원자 (합계 31구좌, 연간 납입 예정액 3,720,000원)

동문 및 가족		교직원 및 가족		일 반	
5구좌	김선화	1구좌	권시후	10구좌	성복중앙교회
3구좌	문유나	부설기관		8구좌	오계순
1구좌	장연정	3구좌	오윤아		

합계 284,538,386원 (일반후원 + 약정후원) (2020. 2. 21~2020. 1.31) 『**KBU 2020캠페인**』 목표금액 5억원 (57% 달성)

총장의 편지
강우정 총장

어떤 졸업식

올해는 학위수여식을 6 번하게 됩니다. 각 학과별로 한 번씩 그리고 신학대학원 이 따로 식을 갖습니다. 코로나 –19로 작년에는 졸업식을 아예 취소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졸업생들은 삼삼오오 학교를 찾아와 학사 가운을 빌려 입고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는 번거롭더라도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도 졸업식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냈습니다. 학위 과정을 마치고 나서는 학우들의 시작을 아름답게 꾸며 주고 싶다는 욕심을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대학이 소규모 대학인 것이 이럴 때는 참 다행입니다. 집회도 방역지침에 따라 소그룹으로 나누어 하면 된다는 방법은 이미 작년 여름 밀알훈련 때 해 본 경험도 있습니다.

졸업식은 3 일 동안 오전 오후 하루 두 번씩 하는데 시간문제로 식순을 정하며 논의를 많이 하였습니다. 졸업식에 앞서 드리는 예배를 교목실장의 간단한 기도로 생략하자는 제안을 했다가 일립교육부장 유정선 교수 목사님에게 혼이 났습니다. 성서대학이기를 포기하자는 거냐구요. 설교하실 분은 학과별로 초청하되 눈치가 있으신 분으로, 총장권면은 총장의 재량(?)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학위기를 개별적으로 수여하느냐 아니면 대표에게만 하느냐였습니다. 결국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별적으로 주어야 한다고 한 사람이 강력하게 주장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한 사람은 물론 총장입니다. 그 대신 코로나식 '주먹악수'도 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졸업식은 모두가 다 마스크를 쓰고 있게 되겠지요? 마스크 색깔을 통일하는지 아니면 자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서로 잘 알아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스크에 이름이라도 크게 쓰면 모를까. 훗날 보면 참 기상천외의 기이한 장면이겠습니다.

졸업생들에게는 참 미안하네요. 손 한 번도 못 잡아보고 총장초청 리셉션도 없어 저녁 한 끼도 대접 못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항상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직원 컬럼
이은영 직원 (사무관리팀)

새별오름

얼마 전 결혼기념일에 가족과 제주도를 다녀왔다. 전망 좋은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신다는 마음으로 김포를 출발했다. 현지에 내리니 비가 오고 안개마저 시야를 가로 막는다. 가볍게 왔는데 남편은 새별오름을 가보자며 잡아끈다. 날씨까지 이런데 영 내키지가 않았다. 안개로 안보일게 뻔한데 굳이...!

오르는 길은 지척도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자욱했다. 내키지 않은 일정이라서 발걸음이 더 무거웠다. 시간과 함께 내 호흡도 거칠어졌다. 정상 가까워질 무렵쯤, 몸속이 뜨거워지고 머릿속이 명료해진다. 몸은 고단했지만 청량한 기운들이 세포를 깨우는 것 같았다. 기분이 묘했다. 이런 기분이 뭐지! 갑자기 순간에 집중하고 싶어졌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한걸음! 한 계단! 하루! 집중하며 발걸음에 힘을 더했고 마침내 정상. 그런데 그 많던 안개는 다 사라지고 없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활한 전경에 내 시선은 압도됐다.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면서 나는 속으로 울컥했다.

그날 나는 거대한 산이 아닌 야트막한 오름을 걸으며 큰 감동을 받았다. 이것이 인생이고 이게 삶이었다. 마음이 안 내킬 수 있다. 높은 곳과 먼 곳이 아니라도 된다. 그냥 안개 낀 인생길을 한걸음씩 걷다가 숨이 찰 때쯤, 슬쩍 뒤돌아보고 다시 힘을 내면 어느덧 정상이리라. 후퇴하지 않고 묵묵히 오르다보면 목표점에 와 있는 자신을 보겠지. 그리고 감사함과 행복, 회개와 순종, 또 열정까지 더해져 넉넉하게 성장한 나를 다시 확인하게 될 것이다.

오래전 봤던 영화 '서편제' OST 에 '살다보면' 노래가 떠오른다. "그저 살다보면 살아진다…" 라는 평범한 가사다. 그래,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살다보면 다 살아진다. 조용히 가사를 음미하다보니 내가 더 새삼스러워졌다.

현재 내 앞에 놓인 일과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시작하고 걷다보면 다 끝내진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어렵지만, 사랑하다보면 또 사랑해진다. 성서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각자의 오름을 향해 오르기를 소원해 본다. 사랑하다보면 또 사랑해지고 행복해진다는 걸 믿기에...

교수 컬럼
김정숙 교수(간호학과)

정상으로 가는 지름길은 없다

히말라야의 8000 미터급 14 좌를 완등한 최초의 미국인 Ed Viesturs 는 인내를 통한 험난한 역경을 이겨내는 5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상의 열병에 걸리지 말 것, 둘째, 고된 훈련을 기피하지 말 것, 셋째, 언제 포기해야 하는지를 파악할 것, 넷째, 죽음의 지역(Death Zone)을 신속하게 벗어 날것, 그리고 "정상으로 가는 지름길은 없다"라고 말했다.

내가 지난 2016 년 2 월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4130m) 등정을 시작으로 이후 킬리만자로(5895m), 엘브러즈(5642m), 잉카(4200m), 에베레스트 칼라타파르(5545m) 등의 고산 도전에서 배운 건 시간과 인내심이었다.

산은 정상을 탐하지 않고 그 안에서 인내하고 존재할 때 길을 내준다. 주어진 행로를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 욕심부리거나 서둘러도 안 된다. 극한의 고통까지 참아낼 수 있을 때 정상을 허락해 준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뒤돌아 설 용기 있는 자, 팀 가치를 준중하고 함께하려는 자에게 안전보장과 정상 등정의 축복을 누리게 한다.

현재 코로나 상황은 마치 고산에서 맞는 죽음의 지역과도 같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저절로 갖게 한다. 전도서 저자는 모든 것에 때가 있으며, 하늘 아래 모든 목적마다 그에 맞는 시기가 있다고 말했다. 허물어지는 시간과 쌓아 올리는 시간까지도 ...

지금 우리는 험난한 죽음의 지역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코로나 상황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적응을 위한 노력과 감사로 인내하며 묵묵히 걸어갈 때 정상에 서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외래교수 컬럼
임상기 교수(의료사회복지론)

주님의 사랑 있으니 힘내자

지금 우리 모두는 힘들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렵지만 그렇다고 실망치 않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용기내고 이 한 해를 힘차게 시작했으면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평소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소중한 존재인데 현실의 나는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너무 볼품없고 못난 존재라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분 사랑 안에 머물며 하나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똑똑하고 잘 나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있어서 아무런 조건이 필요치 않다는 말과 같습니다.

신앙인은 자기 장점뿐 아니라 단점까지도 아파하며 돌보고 사랑해야 합니다. 단점을, 없애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보고 싶지 않은 것으로 여기기보다 나의 한 모습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단점 인정이 쉽지 않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때론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단점과 약점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실수로 잠시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너로 만족하니 괜찮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나 스스로를 먼저 사랑해야 다른 이도 사랑하게 되고 나아가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성서대학교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올해도 작년 못지않게 힘든 한 해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소망을 버리지 않은 건, 단점 많은 나일지라도 사랑으로 품고 동행해 주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한 발자국씩 힘차게 내디뎌 봅니다.

주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최정권 목사 컬럼

성서대학교회 담임

북한강을 바라보며

"목사님! 오늘은 차 가지고 가세요." , "아니 왜? 난 태워주는 게 더 편한데…." 한국에 와서 주어진 스케줄을 진행하다 보니까 집사람이 운전해 주는 게 편해졌습니다. 새벽에도, 방송국 가는 길에도, 출퇴근길도 저는 동승자가 돼서 잠을 자거나 물끄러미 창가를 바라보는 남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차의 주인이 된 겁니다. 차를 몰고 아파트를 나가는 순간, 마음의 자유로움이 한 마리 나비가 되어 날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날이 늘 있는 게 아닐 거라는 나비의 펄럭임이 마음의 공기를 흔들었고, 그렇게 샛길로 빠져 달려가면서 바라 본 북한강은 도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들 묶여 사는데 강은 묶이는 법 없이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2020 년은 불안하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올 초만 해도 이대로 가면 부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텅 빈 공간을 바라보고 설교 할 줄은 몰랐습니다. 여전히 적응은 안 되지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에 감격하였던 기간이었고, 빈 쌀통과 빈 병에 날마다 채워 주시는 은혜로 유학생들의 의료보험과 2021 년도 성서학과 전체 입학생의 장학금과 개척교회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위로 하나님의 은혜와 변함없이 섬겨주신 성도여러분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음의 나비를 따라 간 강물은 여유가 있어 보였고 그 강물의 물줄기를 바라보고만 있어도 좋았습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좋은 건 강물만은 아닐 겁니다.

"너는 네 떡을 물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전 11:1),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시 123:1)

임경미의 토닥토닥 시 79

봄바람 _ 고훈

보이지 않는다 하여
우리를 모른다 하지 말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한다

보잘 것 없다 하여
하찮게 생각하지 말라
누군가 하는 일 다 할 수는 없으나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우리는 하고 있다

빈손으로 돌아간다 하여
헛수고라 생각하지 말라

우리로 하여
얼어붙은 대지는 생명 기지개 펴고
벗은 나무는 잎을 내고
잠자는 모든 것은 깨어난다

사랑하는 모든 이여
오늘은 우리 모두
하늘 바람이 되고
봄이 되고 싶지 않는가

https://blog.naver.com/garden12221/150134140715

바람이 많이 부는 걸 보니 봄이 오나보다. 바람은 가지를 흔들어 뿌리를 깨우고 흙을 날려 땅을 깨운다. 물결을 헤집어 강을 흔들고 강 앞에 선 우리들 스산함도 흩어버린다.

햇볕이 따뜻한 걸 보니 봄이 오나보다. 햇빛은 가지마다 연한 물빛 물들게 하고 포실포실 흙고물도 펼쳐놓는다. 응달진 곳 살얼음이 풀리니 우리들 움츠림도 녹아내린다.

강 앞에 서서 서성거리는 이여! 아리고 세찼던 시간은 잠시, 이제 봄이다. 봄은 이렇게, 우리를 흔들어 일어나게 하고, 걷게 하고, 가야 할 길을 다시 바라보게 한다. 마침내 도달할 그 길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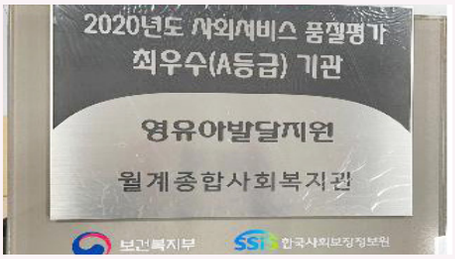
대학어린이집 ___ '가정에서 신나게 놀이해요'

▲ 연령별로 제공된 그림책 놀이키트

대학어린이집은 지난 22 일 ,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해가며 가정보육 중인 영유아와 긴급 돌봄 교육을 받는 모두에게 그림책 놀이 키트를 전달하였다 . 이번 키트제공은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각 연령에 맞는 그림책을 선정했다 . 키트는 책 내용과 연관된 놀이용 재료로 구성 , 가정에서 도구를 사용해 부모와 함께 교육적이고 흥미롭게 시간을 보내도록 고려하였다 . 학부모들은 자녀와 놀이키트를 활용하면서 "아이들이 가정에서도 교육적인 놀이를 즐길 수 있어서 좋았다" "덕분에 자녀와 더욱 친밀해졌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하루 속히 코로나 19 가 종식돼 모든 영유아들이 함께 놀이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이 되돌아오길 기도한다 . **[감사반 김혜선 교사]**

월계종합사회복지관 ___ 월계발달지원센터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최우수 (A 등급) 현판

월계종합사회복지관 내 월계발달지원센터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시설사회서비스 평가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 평가를 통해 11 개 우수 사업기관에 선정 , 상위 10% 의 영예와 함께 우수기관인 A 등급 선정의 명예까지 얻었다 .

시설사회서비스평가는 지난해 6~9 월까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영유아바우처에 대한 품질 평가로 진행됐다 . 서울시내 69 개 복지기관이 해당되며 5 개 품질평가영역과 32 개 지표를 중심으로 심사가 펼쳐졌다 . 우리 기관은 총점 91.57 점의 고득점으로 장관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

우수기관 선정에 따라 장관상과 우수기관인증 현판 및 3 백만 원의 포상금을 부상으로 수여받았다 . **[복지서비스 1 팀 임푸름 사회복지사]**

꿈빛어린이집 ___ 교사 힐링 연수

▲ 교사들이 힐링 프로그램에 따라 핸드폰 지갑을 만들고 있다 .

지난 21 일 꿈빛어린이집 교사들은 국공립어린이집 협회가 지원하는 자체 힐링 연수 프로그램을 가졌다 . 이번 프로그램은 협회차원에서 교사들의 노고와 정서적 힐링을 높여 긍정적인 교육효과를 낳도록 하기 위해 진행됐다 .

교사들은 함께 모여서 협회가 제공한 핸드폰지갑 만들기 키트를 매뉴얼 따라 가죽공예품으로 제작해갔다 . 서툰 솜씨로 가죽조각을 한 땀 한 땀 바느질하였고 이를 이어 붙이며 나만의 핸드메이드 지갑을 완성했다 . 평소 잘 해보진 않은 분야였지만 목적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함께 대화하며 영유아도 성숙한 인격체의 기반이라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힐링 연수가 한 공간 안에서 힘이 되어 준 동료를 서로 격려하며 친목을 도모해가는 훈훈하고 보람찬 자리가 됐다 . **[나리반 여미희 교사]**

성서대학교회 ___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포스터

성서대학교회는 2021 년 새해를 맞이하여 1 월 4(월)~8 일 (금) 까지 '우리의 믿음은 귀합니다' 주제로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를 가졌다 .

코로나 19 에 따라 모든 예배 과정은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성도들은 자신의 처소에서 실시간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했다 . 담임 목사님은 코로나로 여러 가지 힘든 환경을 맞고 있다 .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믿음에 대한 의지를 더욱 견고히 세워 삶속에 실천하고 전파하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였다 .

성도들은 새해부터 믿음에 대한 핵심을 재정립하고 성도의 본분을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었다며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 . 이와 함께 코로나 종식으로 대면예배가 회복되는 축복의 2021 년 되기를 소망하였다 . **[오종철 목사]**

상계백병원어린이집___ 수료 사진에 추억을 담다

▲ 영유아가 수료용 사진으로 추억을 남기고 있다.

상계백병원 어린이집은 지난 20 일 수료 촬영을 진행하였다. 코로나 19 발생 이전에는 매년 단체와 개인 사진을 함께 찍으며 어린 시절 귀한 추억을 남길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 19 로 단체 사진은 생략하고 한 명씩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인 개인 촬영으로 대체하였다. 영유아들은 자유롭고 개성있는 다양한 포즈를 취해보이며 추억을 사진으로 남겼다.

학부모들은 올해 코로나 19 와 외출 제한으로 자녀 사진을 많이 남기지 못해 아쉬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배려해줘서 예쁘게 찍었고 선생님들 덕분에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었다며 사랑에 감사함을 전했다.

영유아와 학부모가 지난해 코로나 19 로 힘들었지만 자녀들의 사진을 통해 잠시 위안과 기쁨을 확인하는 시간이 됐다. **[푸른반 이예은 교사]**

노원육아종합지원센터___ 2021 년 어린이집 평가제 컨설팅 START

▲ 관내 어린이집 평가제 컨설팅용 자료북

2021 년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평가제 컨설팅이 시작되었다. 본 센터는 노원구 관내 어린이집이 평가제에 대한 혼선 방지와 평가 긍정성 및 전체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한 OT 및 지표교육 등을 사전에 가졌다. 이를 기점으로 보육일지 워크숍과 간담회, 우수어린이집 참관, 현장방문컨설팅이 진행될 예정이다. 평가는 어린이집이 가장 필요로 하는 운영관리, 보육과정 등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부분까지 심도 깊은 컨설팅이 이뤄지게 된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개별 맞춤형 상담과 관련 교육이 잘 보완되도록 다양한 지원책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컨설팅이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평가 사각지대 해소 및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보육전문요원 이주애]**

상계5동어린이집___ 놀이키트 배부

▲ 그림책과 놀이키트가 담겨진 주머니

상계 5 동어린이집에서는 지난 1 월, 가정연계활동으로 ' 그림책과 놀이키트 ' 를 배부하였다. 놀이키트는 가정보육중인 영유아가 뛰어 놀지 못하는 아쉬움을 놀이를 통해 달래주기 위해 준비되었다.

그림책과 놀이키트는 각 연령에 따라 배부했다. 만 0~1 세는 동물 주제의 그림책과 인형을, 만 3~4 세는 곤충 그림책과 모형, 만 4 세는 세계 여러 나라의 그림책과 전통의상 등이 담겨 있다. 만 5 세는 우리나라 위인 관련 그림책과 장난감 만들기 세트가 제공되었다. 영유아들은 주제와 맞는 그림책과 연계 놀잇감으로 확장놀이 및 관련 내용을 익힐 수 있다. 놀이를 통해 내용과 관련된 개념 인지와 사고력 확장까지 가능하다.

학부모들은 " 아이들이 집에만 있어 다소 침울했는데 보내 준 선물이 큰 활력이 됐다 " 며 만족함을 보였다. **[예쁜꽃잎반 유정현 교사]**

늘사랑어린이집___ 교직원 아동학대예방교육

▲ 교사들이 자체적으로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받고 있다.

늘사랑어린이집은 매달 전 교직원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진행해 왔는데 지난 21 일 이와 관련된 실제 판례로 보육교사의 자세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사들이 아이들과 생활하다보면 훈육이 필요한 상황은 수시로 일어난다. 이때 순간적인 감정을 자제 못하고 비교육적으로 대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된다.

교육에서는 영유아 눈높이에 맞춰 아이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는 관점이 우선 중요하다. 사랑으로 소통하고 감정을 제어하는 지혜의 필요성에 교사들은 적극 공감하였다. 교사의 사명과 본분에 대한 의견과 영유아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실천하겠다는 다짐도 가졌다. 예방교육이 헌신적인 보육교사의 자아상을 일깨워 준 귀한 시간이 되었다. **[즐거운반 변윤선 교사]**

충무어린이집___ 비누 만들기

▲ 비누 만들기에 사용되는 재료들

지난 19 일 충무어린이집에서는 '나와 너, 우리를 지키는 셀프 백신 ! 온 마음 비누 만들기' 활동을 가졌다. 비누를 이용한 손 씻기가 코로나 19 예방의 중요한 수칙이 되는 상황이다. 영유아가 비누를 만들며 청결의식을 높이고 코로나 19 에 힘들어하는 이웃 주민까지 돕는 계기로 진행하였다.

영유아들은 선생님의 도움으로 비누베이스를 자르고 녹는 과정을 유심히 살펴봤다. 또 몰드에 녹인 비누베이스가 서서히 굳어가는 상황도 관찰하고 자주 사용하는 비누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지 경험하였다. 완성된 비누는 예쁘게 쓴 손 편지와 함께 전해 받는 사람의 마음까지 흐뭇하게 해 주었다. 작은 정성으로 이웃을 향해 나눔과 보람을 실천한 뜻 깊고 소중한 시간이 됐다.

[김한나 교사]

www.bible.ac.kr

「성서대학돕기운동」 기부현황

KBU와 함께 꿈꾸는 복음의 내일, 성서대학돕기 운동이 복음을 심습니다!

- 기부기간 2020년 12월 21일부터 1월 20일까지 신규약정 및 기부해 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 국내기부 국민은행 835-01-0178-931 예금주 한국성서대학교 / 하나은행 123-910004-14705 예금주 한국복음주의학원
- 국외기부 PayPal : kbiblefunds@gmail.com / Mail Check : Payable to Korean Bible Funds _ 646 Eliska Ct. Walnut Creek, CA 94598
  Wire Transfer : Wells Fargo Bank _ Korean bible Funds _ Account No. : 384 048 3592 _ Routing No. : 121 000 248
- 접 수 처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_ 한국성서대학교 대외협력실(복음관3층) _ Tel. 02.950.5599, 5517 Fax. 070.4275.0161

100만원 이상 기부자 명단

강우정.강진(총장)	5670만원(운영)	중앙성서교회(현희철 목사)	200만원(운영)
KB노원종합금융센터	2000만원(운영)	최선희(사회복지학 교수)	130만원(운영&사회복지학)
성서대학교회(최정권 목사)	835만원(운영)	이례장학	100만원(장학)
신대민(동문)	301만원(컴퓨터소프트웨어학)		

약정자 명단

동문 및 가족
1구좌 강나경 강주옥 김은천 김 진 나선영 방지연 서규원 손진규 신종수 유지영 이두현 이상준 이혜윤 임남연 장희남 정선도 정재연 조경애 조태환
2구좌 오상석
3구좌 강수진 김지애 장영훈
5구좌 김준오
100구좌 이례장학

재학생 및 가족
1구좌 류한나 이혜진
2구좌 최혜진
3구좌 김윤정 박재완

교직원 및 가족
1구좌 류은미 장원경
2구좌 오철송
6구좌 권순범
10구좌 고미숙 김승호 장인순 최은희

부설기관
1구좌 김은지 김지은 박제하
2구좌 홍옥주
3구좌 문유나 박천순 오윤아 위소진 유정현 장나혜
5구좌 이지연
15구좌 김화영
30구좌 오동준

성서선교회
1구좌 강경혜 이대영

성서선교회
1구좌 최영란
2구좌 이수병
3구좌 김덕규 김옥자
10구좌 송인숙 현희철
15구좌 이혜선

효성교회
1구좌 진효숙

일 반
1구좌 문해영 박미숙 소아름 윤수현 윤준영 이성희 조목장
3구좌 김미수
5구좌 석지현

단체 및 기관
3구좌 강남임마누엘교회
5구좌 천성교회 평안교회(송파) 행전교회
10구좌 (주)이레E&C이레디자인 가성교회 구리중앙교회 대광교회 서부중앙교회 성복중앙교회 오감발달연구소
30구좌 염창중앙교회

기부자 명단

동문 및 가족
5천원 김샛별
1만원 강상미 강순성 강신용 강애솔 강은아 강은해 강재현 강정민 강주옥 강춘자 고성호 고재민 곽미화 구본길 구세경 권명순 권순실 권순웅 권슬기 권유철 권정인 권지연 권희조 금동옥 김가영 김가희 김경수 김다솔 김다예 김도훈 김두환 김명희 김무엘 김민겸 김민아 김민정 김믿음 김병렬 김보희 김선근 김선태 김성애 김세현 김소영 김수연 김순덕 김순화 김승현 김승훈 김승희 김유미 김유진 김은석 김은주 김은천 김은혜 김응환 김일준 김재한 김재현 김정례 김정희 김준우 김지선 김 진 김진숙 김진영 김진하 김춘덕 김태용 김하은 김한나 김현정 김혜영 김화석 김화태 나선영 남경숙 남범수 남상숙 남성휘 노한나 도 만 류요한 류희정 마효정 맹현진 문기철 문성령 문수란 문정혜 문홍철 박경수 박경옥 박명우 박문홍 박수진 박순임 박아론 박연서 박영근 박윤복 박은경 박재신 박재윤 박종주 박주옥 박지영 박창대 박창민 박철교 박필종 박향식 박형택 박혜인 반해빈 반해성 방지연 배은휘 배창경 배효순 백명희 백연주 백해송 백향목 변지윤 서규원 서미희 서유미 서 융 서은숙 서지혜 서 현 서희영 성한나 손명배 손영화 손윤숙 손진규 송민규 송성은 송영자 송원복 송현미 신경자 신미선 신은혜 신종수 신지은 신태양 신혜영 심두한 심순자 심인자 심희남 안현정 양은숙 엄보라 엄보영 여지은 연현숙 오세천 오은희 오찬미 오채엽 오흥복 용아름 우승연 우현아 원윤희 유미정 유보아 유소담 유수정 유영진 유주홍 유지영 윤영원 윤정숙 윤정숙 윤지준 윤혜자 이광석 이근중 이두현 이만수 이명호 이미정 이민우 이민화 이병주 이상용 이상준 이상진 이상필 이석호 이수경 이수진 이신재 이영광 이영식 이용원 이용철 이윤주 이은영 이정모 이정숙 이정익 이정훈 이종근 이주희 이지성 이진경 이진리 이채녀 이철승 이현무 이현섭 이현지 이혜선 이혜윤 이환기 이환희 인지혜 임남연 임삼일 임은성 임은진 임찬웅 장순호 장윤국 장익봉 장익심 장희남 전다현 전명수 전명자 전상호 전아름 전아영 전한나 정금숙 정다연 정다운 정다운 정선도 정영교 정은희 정인철 정재연 정지현 정진영 정희영 조경애 조믿음 조소연 조수빈 조승희 조영희 조은경 조은화 조차현 조태환 조현석 주민자 주영덕 주진우 지영환 채유신 채종원 최규봉 최선경 최성자 최승주 최승진 최아란 최예슬 최윤석 최인호 최종운 최진희 최현정 최혜림 탁국현 탁선화 탁윤석 하수현 하 진 하진우 한경순 한상장 한성광 한원창 한혜우 허영숙 허정운 홍금주 홍선호 홍성대 홍애진 홍자영 홍정심 황선명 황형록 설에스더 신에스더
1만5천원 이예람
2만원 구연민 국소영 길득희 김미나 김미향 김복녀 김성훈 김순녀 김연정 김연주 김영래 김영주 김영태 김용길 김원미 김은하 김재원 김정복 김정훈 김중재 김지원 김태분 류충열 마혜진 박재송 백연옥 성낙표 성용제 소경숙 손성원 송만호 신정섭 신정화 신화영 양승용 오상석 오정순 왕용분 유순희 유의숙 윤광길 이구영 이기용 이기주 이상복 이선영 이소연 이승환 이아름 이영애 이유미 이유진 이의선 이정목 이종임 이충희 이현우 임수경 임은희 장재경 장재원 장정인 전영희 전택복 정영용 정옥순 정 완 조성진 조하영 최선옥 최수지 최인경 최호정 탁명화 하지혜 한민수 홍진옥 홍혜주 황승호 황인숙 황보혜영
2만9천원 고하은 용혜수 이예은
3만원 강수진 공복순 공지은 구예은 권서영 권오규 권은지 김동교 김석환 김종숙 김혜진 나예원 남지원 문순일 문지원 문진아 민승철 박기혁 박문용 박민송 반세호 방애자 배예진 서명주

기부자 명단

서성숙 설보경 성인선 신연정
양연선 양혜영 윤문순 이길순
이남희 이다윤 이성은 이안나
이영섭 이윤성 이재국 이주연
이현지 장예솔 장혜란 전다정
전영이 전지혜 정슬기 조유진
조하은 최광희 최소린 최양서
최홍식 탁현정 태지선 홍석화
황영숙 황예린

4만원 박주은 신은진 이은애

5만원 강경옥 길소윤 김기국 김종남
김준오 김진경 남영란 남희경
박광필 송복순 신상춘 안선례
유양숙 이기훈 이부호 장은희
천유림 최송희 허성희 홍현숙

6만원 장영훈 정동주

10만원 김동관 김장교 김진만 서광진
서수경 신치선 양연주 이병철
장명헌

11만원 유선미

20만원 김남웅

100만원 이례장학

301만원 신대민

재학생 및 가족

1만원 강정희 고희자 권순길 기병문
김선경 김양순 김요셉 김은이
류한나 박기영 박대종 박민희
박재숙 선동하 선유정 송은라
신연정 심희정 안양희 엄미자
윤효심 이광승 이나라 이동기
이성령 이혜진 임동현 임동화
장영철 전계화 전명자 전용숙
정창금

2만원 강세윤 김형태 박혜숙 서성식
이마리 이영림 전옥순 최혜진
홍은선

3만원 김윤정 김재임 박인순 박재완
배정숙 안태유 이종권 조대의

4만원 박지성

5만원 김선주 김성안 김종호 유정열
이재현 이지은 전영준 정미영

21만원 신영옥

교직원 및 가족

1만원 강신애 곽한나 구자람 권관희
김다윗 김미영 김병수 김상일
김선준 김 성 김세미 김세진
김애란 김영직 김유진 김지성
김지현 김춘하 김형중 김혜성
류은미 박남일 박덕자 박묘서
박주양 서광철 서의영 안수자
양승원 윤명섭 윤혜진 이문자
이승영 이종우 이지희 임수아
장경순 장원경 장혜지 전광선
전귀선 조철남 조형섭 최미영
허윤민 홍성진 황찬범
요시다고조

1만5천원 정지용

2만원 강민경 강승현 고진주 권서후
김남준 김봉재 김세원 김은실
김장호 문지예 민경은 박은주
박태용 배민정 안 호 오철송
유성현 이상일 장길정 장지순
정순애 정은상 최난영 한상만
한정숙

3만원 권오섭 박성범 박재진 방진희
신재윤 양희정 유다운 유수연
이소연 전영호

4만원 김덕원 민찬양

4만4천원 강지원 강지홍 강지훈

5만원 권순범 김미숙 김성호 김원빈
김은영 김현동 신지수 유미나
이광삼 이은광 이호섭 장정순
최사랑

5만4천원 강영숙

6만원 이성아

7만원 김덕현 임환석

9만원 박인혁

10만원 강정원 고미숙 김도경 김성경
김승호 김정숙 김주아 김태규
김현광 김현욱 김형미 문무열
박성환 배진형 신금주 안정선
양혜경 오은주 원영희 유정선
이민규 이복남 이소정 이은주
장성희 장인순 정순례 조현진
조혜경 최영태 최육열 최은희
현우석 김정원(신) 김정원(영)

10만9천원 강승태

11만원 최지은

12만원 권경만 김웅기

13만원 곽규상 김중완 한진호

15만원 강규성 김은호 이한영

20만원 김창원 박 선 박태수 정해덕
정휘진 조윤경

22만원 강일석

23만원 이강동

25만원 임지영

30만원 오윤선

35만원 김희수

50만원 반종원

54만원 강일아

130만원 최선희

5670만원 강우정.강 진

부설기관

1만원 김옥준 김은지 김지은 김한솔
문유나 박제하 오윤아 윤영숙
이다솜 이유진 임재택 차도영
최선영 허성보

2만원 장윤정 홍옥주

2만9천원 이수현

3만원 권효진 김미화 김선화 김은솔
김현애 박미애 변송이 변윤선
송애솔 위소진 유정현 장나혜
지유림 탁지혜 호한나

4만원 박미선

6만원 이효빈

7만9천원 서영숙

10만원 강진아 권정아 이인경 전안나
지주나

15만원 김신덕 김화영 안미희 차 건

20만원 오동준 조지선

30만원 장수진

권선제일교회

1만원 이상규

5만원 권선제일교회

동광교회

1만원 김복례 한미희 배 윤.김현진

밀알교회

1만원 서효정

비전교회

2만원 장은경

3만원 장석원

서문교회

1만원 강선애 박경자 윤인호 임용주

1만5천원 정찬수

20만원 서문교회

석계제일교회

1만원 채용문

성서대학교회

1만원 강경혜 오경원 이가은 이대영
이대한 이정철 이지수 이진호
임숙정

1만8천원 강규성 고경숙 권경만 권태완
길용희 김동선 김사천 김성진
김웅기 김원태 김인영 김지영
김희현 박선하 박세건 박온유
박이숙 백승우 서 훈 송형기
양태환 오은주 용정자 유상호
유정선 이길우 이대우 이소정
이숙영 이승림 이윤봉 이은영
장근문 장진희 전명진 정나영
정명수 정선희 조건희 조성민
조영희 조정선 조준희 조현진
조혜경 최미숙 최선희 최순남
최영태 최인숙 최정권 한성실
황서린

2만7천원 양천식

3만6천원 김동수 김상은 김신덕 김인자
김일선 김정숙 남지영 류 강
박영숙 박영신 안영숙 오종철
이봉호 장혜린 정승연 정예진
하명란 한진호

4만5천원 김지윤

5만4천원 김배열 박주형 박태수 이영진
이정임 이정자

6만3천원 이경신

7만2천원 김영헌 유중엽

8만1천원 김덕현 장홍림

9만원 김동준 김문응 김성철 김순옥
김윤선 김진철 김현미 김희연
이병윤 이영희 장인순 한충헌

10만8천원 홍재우

18만원 김순자 김은미 김현석 송재철
차선아

21만6천원 강성훈 김민자

835만원 성서대학교회

성서선교회

1만원 곽 해 김세현 김정희 김초롱
오성군 이승학 이태학 정혜란
진재호 최영란 최영숙 한금순
열매맺는교회

2만원 신영옥 오근수 우용식 이수병
강영애.신한성/금촌성서교회
이준구.안춘자

3만원 권순호 김덕규 김옥자
동두천성서섬김교회
태광성서교회 푸른동산교회

5만원 김종구 이경식 한금례
일동성서교회
중앙성서교회 원로 · 은퇴장로회

10만원 김용철 김윤규 송인숙 한상욱
현희철/다빛교회/벧엘성서동우
회/중앙성서교회 바울선교회

15만원 이혜선

24만원 황인돈.김순자

200만원 중앙성서교회

수원교회

1만원 강동형 정유광 홍성호

2만원 김일섭

이레교회

1만원 손미희 이채은

장자교회

4만원 권정숙

5만원 장자교회

주향교회

1만원 유병우

2만원 정우진

3만원 주향교회

퇴계원제일교회

1만원 유재란

10만원 퇴계원제일교회

평원교회

1만원 성경아

평화교회

1만원 안종민

10만원 평화교회

풍암교회

1만원 유금례 윤은정

함평대동교회

1만원 김희경

효성교회

1만원 오혜숙 진경숙

일반

1만원 강소라 구필례 권숙영 권창석
김기수 김대석 김명호 김미라
김범설 김범준 김양권 김유벽
김은경 김인호 김천수 김희권
노용현 노은경 류계현 류찬성
문해영 박미숙 박영희 박지성
박해숙 서민석 소아름 송수용
심재순 안애숙 오미라 오미선
오현숙 원영훈 유해연 유화실
윤수현 윤준영 이관헌 이민우
이성희 이우윤 이원주 이유진
이현수 이혜숙 임숙자 장명웅
조동빈 조목장 조언상 조여원
조은해 진윤승 최경숙 최범식
최서영 최은실 최인숙 한춘경
황영수 위샐러듀

2만원 강명옥 길옥석 김동석 김성래
김윤숙 김종환 서병준 서성원
우윤주 이일신 정주아 정형채
조혜령 진성용 최지연 허정안
홍춘호

3만원 김미수 김종환 손승현 윤미선
장문석

5만원 강한성 서미혜 석지현 이천화
주은자 차인숙

8만7천원 오계순

10만원 류동원 박경혜

20만원 유광석.민경홍

30만원 박순정

단체 및 기관

1만원 (주)대우노즐/(주)삼현미디어/
김포예수사랑교회/늘푸른교회
/맘키즈푸드/목양교회/이음기
업/행복한교회

2만원 (주)삼삼전기관리공사/동신자
원/바르고복된교회/성복중앙
교회/열방교회

3만원 강남임마누엘교회/꿈꾸는교회
/새샘교회/우리교회/의정부좋은
나무교회/한길교회(김오권)

4만원 플랜팅시즈

5만원 다드림교회/미사목민교회/상
일교회/예일에드컬/천성교회/
평안교회(송파)/하늘누림교회/
행전교회/향기나무

10만원 (주)바다나라/(주)이레E&C이레
디자인/가성교회/구리성광교
회/구리중앙교회/대광교회/도봉
성실교회/두암산업(주)/상록교회
/생명샘교회(성주)/서부중앙교회/
소망교회/오감발달연구소/철원제
일교회

20만원 (주)소원기건/청평교회

30만원 한민제일교회

2000만원 KB노원종합금융센터

소계(20201221~20210120)
124,057,636

누계(20200301~20210120)
857,621,034